

## \* 닭고기 등급정보 \*



14개 업체에서 생산한 152만1천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실시하였으며, 1등급은 27만1천수(17.8%), 1등급은 94만4천수(62.1%)를 차지하였고, 전월(14개업체, 187만6천수)대비 18.9%(3만5천수)감소되었다.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8. 1월~ 2월	3,396,618	460,546	2,248,517	687,555
	(100.0)	(13.6)	(66.2)	(20.2)
08. 1월	1,875,717	189,521	1,304,064	382,232
	(100.0)	(10.1)	(69.5)	(20.4)
08. 2월	1,520,801	271,025	944,453	305,323
	(100.0)	(17.8)	(62.1)	(20.1)

※(주) 2007.3.26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제개

## \* 닭 관련 축산소식 \*

### ‡ 가금육 수출물류비 25% 지원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수출물류비의 경우 소요액의 25%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0%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가금육의 수출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일본은 kg당 88원, 중국 85원, 동남아 103원, 미주 135원, 유럽 119원, 극동러시아 103원이 지원된다. 오리는 일본 11원, 중국 108원, 동남아 127원, 미주 158원, 유럽 143원, 극동러시아 127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협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해 삼계탕을 비롯해 오리고기 수출이 가능한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계 및 오리 고기의 경우 싱가포르, 러시아 등 수출가능성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시장조사와 함께 바이어 상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 농촌진흥청, 재래닭 복원

농촌진흥청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 고유의 재래닭을 완전 복원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지난 2월 22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육돼 온 재래 닭을 수집, 한 마리씩 개체관리를 통해 1992년부터 15세대를 선발, 육성해 순수계통의 우리 재래닭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원 완료한 재래닭은 적갈색, 황갈색 및 흑색의 외모특징을 갖고 있으며, 콜라겐 성분이 많아 육질이 쫄깃쫄깃하다. 닭고기의 풍미를 결정하는 메치오닌과 시스틴 등 황아미노산이 풍부해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축산과학원의 설명이다. 축산과학원은 이번에 개발 완료한 닭 종자를 FTA에 대응한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위한 모본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상품출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